

## 야외음악당 철거·재건축 논의 신속히 진행해야 교수회관 식당 확장 필요성 제기

위험하지만 장소의 부재로 음악당에서 공연하는 학생들  
몇 년째 철거 계획 갖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  
학생들 안전한 문화생활 위해 철거·재건축 돼야

잔디광장에 위치해 있는 야외음악당에 대한 철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년째 철거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야외음악당의 철거 문제는 2014년 '진짜' 총학생회 때부터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철거가 제기돼 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 공연·축제장의 부재로 여전히 위험한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 있다.

타 대학들은 노천극장, 야외음악당 등 교내에 마련된 무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뤄지지만 제주대는 학생회관 앞에 있는 한라터 무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곳마저도 소음 때문에 수업에 방해된다 등 이유로 사용이 힘들 상황이다.

의명의 학생은 "야외음악당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곳을 제외하고는 축제를 진행할 무대가 부족하다"며 "경상대학, 인천대"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거 시설과 관계자는 "훼손 정도도 심하고 사용횟수에 비해 유지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마련 되는대로 야외음악당을



11월 3일 진행된 해양과학대학의 축제인 너울제에서 학생들이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다.

문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주변에 빈 공간이 어느정도 있어 축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연대, 공과대, 해양대 학생들의 경우 그런 공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당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위태위태한 야외음악당을 철거 후 재건축해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돋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당백' 관계자는 "현재 야외음악당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며 "당신이 된다면 학생들의 안전한 문화행사를 위해 야외음악당 철거와 무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견의하겠다"고 말했다.

철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상황과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점에서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과 문화생활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건 기자

### 수요에 비해 공간이 태부족

### 연구원 이전과 공사비 해결 우선

한 탐라문화연구원이 이전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2017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오픈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희철(무역학과 교수) 학생처장은 "확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다"며 "하지만 문제점은 확장을 할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진순화 기획평가과 과장은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희철 학생처장, 이하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교수회관 식당은 현재 조식, 고기국수, 순대국밥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하루 평균 약 4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수요는 높고, 공간은 한정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황우화 생협사무국장은 "특정시간에 사람이 몰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오랜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공간이 확보돼 확장을 할 수 있다면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수회관 식당의 확장공사에 대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공간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학교 당국의 속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김해건 기자

## 탐라문화연구원, 12일 칠성대 기행 인문체험 행사

###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행사 추진 고대의 제주를 새롭게 읽어 낼 수 있는 기회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동운 국어국문 학과 교수)이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칠성대 기행 체험을 진행한다.

인문도시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인문체험 행사는 '탐라의 별빛으로 찾아가는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선 강문구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칠성대 터를 기행하는 체험 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칠성통'이라는 지명이 전하는데 이는 고대 탐라왕국 시기부터 전승돼

온 것으로 원도심의 중심지역을 말한다.

탐라왕국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 왕국의 위상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향해했던 해상왕국임이 확인되고 있다. 거칠고 험한 경랑을 헤치면서도 항해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항로를 찾아내는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칠성통'은 '칠성대'가 있어서 생긴 지명이지만 밤하늘의 별로 칠성을 뜻하는 것이며 항해술의 정점이 바로 별로 칠성을 중심으로 항로를 찾는 것이어서 방법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탐라왕국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칠성대의 인문학적인 해석과 동시에 체험이 이뤄진다면 고대의 제주를 새롭게 읽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것은 제주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이므로 이에 대한 인문학적 탐방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탐라문화원은 설명했다.

인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도내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 40명에 한해 접수가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064-754-2310/010-9666-9181).

김해건 기자

### 곽정은 작가 젠더특강 진행

프리랜서 작가이자 방송인인 곽정은 씨가 젠더특강을 실시한다.

11월 16일 오후 4시 경상대학 2호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편견 없는 너, 두려움 없는 나'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비쥬얼웨어링 이지현 대표, 제주여민회 이정선 대표에 이어 3 번째로 진행된다.

취업전략부 이미수 연구조교는 "남녀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곽정은 작가를 초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곽정은 작가는 현재 코스모폴리판

피쳐 애디터이며 JTBC <말하는대로>에

출연하고 있다. 또한 작가로는 <우리는 어째서 이토록>, <내 사람이다>, <흔자의 발견>을 썼다.

김해건 기자

## 장애센터, 인식 개선 '함께성장여행' 실시



'함께성장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김희철 무역학과 교수)가 10월 29일 올레길 10코스(서귀포 사계리)에서 장애·비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성장여행'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이번 행사

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배려심 많은 사회인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실제 여행을 하면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동로나

편의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장애학생들이 평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이 많았을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 국가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를 기다립니다

### 신고 대상

#### 연구개발비(R&D) 편취,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 자수(社)물품 구입
- 연구기자재, 재료 구입비 부풀리기
-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정산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횡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
-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여 연구개발비 편취 등

###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 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http://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 200 - 7972
- 우편·방문 : (03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 신고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 학교 측과 협의해 공약 이행 노력

11월 1일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 열려

구체적인 공약 실현방안 언급 없어 아쉬워

총학생회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가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단독입후보한 '일당백' 총학생회 팀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장학금, 학사 제도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가 없는 곳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질문 쏟아져

학생들은 장애인 인권 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실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부족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는 수강 신청 마일리지 제도 같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조현아(언론홍보학과 3)씨가 "공약으로



11월 1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다.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활한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생회 관심 부족

김은솔 공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은 "올해 공과대학 학생회가 없어서 공과대학 대의원회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자치기구나, 단과대학 학생회가 공석일 경우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은총 총학생회 정후보자는 "우리 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학생들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며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하

◇내년 대선 청년정책 관심 갖겠다

김민해 일조일향 총대의원장은 "내년 대선으로 인해 정후보자는 소신껏 후보자를 지지할 건지"를 물었다. 이에 양은총 '일당백' 총학생회 정후보자는 "일만 아라 학생이 투표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지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자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관심은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11월 10일 오후 1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김동현 기자

기자가 바라본 정책토론회

## 2차 정책토론회서 공약 이행 방안·비전 보여주길 기대



정책토론회는 학생들이 투표에 임하기 전 중앙자치기구 후보자의 공약을 검토하고, 학생들을 위해

내년 총학생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직접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다.

그러나 11월 1일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대충 임하고 느꼈다. 학생들이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법을 물어도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도 많았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가 연세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는

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다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후보자는 수강 신청 마일리지 제도는 한 가지 개선 안 일뿐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수강신청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약으로 내건 것처럼 보였다.

차라리 타 대학의 사례를 찾아보고 가장 최적화 된 대안을 갖고 출마했다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회의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며 "학생들과 원

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법을 언급했어야 했다. 그게 없다면 공약으로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 2학기에 장학금 제도가 바뀌면서 장학금 액수 등이 줄어들었는데 학생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2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장학금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듯 총학생회 정책토론회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기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토론회를 다 지켜봤다. 그 당시 총학생회 후보자들은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그

당시 경선이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단선이라고 해서 정책토론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은 11월 10일 열리는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 2차 정책토론회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번 1차 토론회를 보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교육방송은 정책토론회 영상을 편집해서 제주대미디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는 <https://www.youtube.com/watch?v=hrdRN2tptsvQ#t=2222>에 올려져 있다.

김동현 기자

## "대통령 하야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

제주지역 교수들 시국선언문 발표

제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어 발표

제주지역 대학교수들이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여야정치권이 즉각적인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한라대교수들로 이뤄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상임대표 윤용택 철학과 교수)'가 주축이 된 이번 시국선언은 이를만에 117명의 교수의 서명을 받아 진행됐다.

이들은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충격에 빠지는 미중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수들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 비례대표제 강화 등의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같으로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며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공공성의 토대가 무너진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문을 마무리했다.

윤용택(철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제주지역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부족해 많은 교수님들의 서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 창업지원단,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2기 성료



교육을 마무리 지은 창업지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업지원단(단장 김형준 건축학

등이다.

부 교수)이 최근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2016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2기(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총 40시간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창업 및 사업계획서의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프로세스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 사업계획서 작성, 집중멘토링

교육에는 지식서비스·제조·식품 분야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12명의 (예비)창업자가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일반인 실전창업강좌는 생존경쟁력을 갖춘 창업자 육성을 위해 체험 및 멘토링을 중심으로 3개의 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김동현 기자

##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치완

편집국장 김해건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277-9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 제36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62주년을 맞이하여 제36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mailto:press@jejunu.ac.kr)로 제출

### 3. 접수마감 : 2016년 11월 21일(월) 18:00까지

###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5만원

###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6. 발표 : 제주대신문 백록학술상특집호 (2016년 11월 30일 발행)

제주대신문

## 환경보건센터,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 게재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흥성철 의학과 교수)가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증가가 알레르기 항원에 대로 감작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 (SCI)인 *American Journal of Rhinology & Allergy* 2016년 7월 호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소아에서 알레르기 항원에 새로이 감작은 증가된 체질량지수와 연관성이 있다( New allergen sensitization might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body mass index in children)"다.

이 연구는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와 체질량지수를 조사해 2년 뒤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통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새로 알레르기 감작이 발생한 그룹에선 다른 그룹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많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비만아동의 경우 체내 지방세포가 증가할수록 혈액 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면역세포 등의 증가를 초래해 기도 과민성을 증가시키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의 역치를 낮추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레르기 항원에 보다 용이하게 알레르기 체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진행됐다.

기존의 비만과 알레르기 소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횡단적 단면연구나 종적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연구 대상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정도에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첫 번째 연구로써 가치가 있다. 김동현 기자

## 통역번역대학원

### 11일 입시설명회 진행

통역번역대학원(원장 김원보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이 11일 오전 10시 30분 대학 동시통역실에서 2017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대학 동시통역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선 통역번역대학원 소개와 한영과·한독과·한중과·한일과 등 4개 학과에 대한 입시설명이 진행된다.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25명, 특별전형(제외국민 및 외국인) 약간 명이며, 학과별 인원은 지원자 수에 비례해 선발한다.

전공외국어 필기시험과 면접은 12월 20일에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 이뤄진다.

김해건 기자

## 강동현씨

대한수의학회 우수논문발표상

강동현 (수의과대학 4)씨 (지도 교수 김재훈 수의학과 교수)가 경남 진주 MBC 컨 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수의학회 2016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강씨의 발표 논문 제목은 "개에서 발생한 전이성 귀지선 암종 (Metastatic ceruminous gland adenocarcinoma in a dog)"이다. 이 논문은 개(코커스파니엘 종)에서 발생한 외이도의 귀지선 암종의 병리조직학적 특징과 면역조직학적 염색을 통하여 사이토케라틴(cytokeratin) 발현 양상을 증명했다.

또한, 반려동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비춰 악성 종양의 치료와 대책 및 반려동물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주변의 펫샵까지 전이하였음을 규명한 논문으로 국내에서 첫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건 기자

## 교수시론

노대원  
국어교육과 교수

## 속도와 습도

제주에 와서 느림의 미학과  
적절한 습도의 중요성 느껴  
넘지는 것은 버리고  
모자란 것은 채워야 한다

”

## 돌하르방

김명지  
특별기자

## 다시 만날, 우리의 세계

이화인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 사건은 올해 온갖 권력의 압제로부터 일어난 시민들의 큰 승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화의 난은 이들만의 승리는 아니다. 이 난은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의 웅직임을 가시게 했다. 이길 수 있다는 시원함을 선사했다. 이들은 또, 이후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대학 부정입학, 성적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불을 지폈다.

각종 논란에도 끄떡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로 끝없이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만이 긍정 평가했다.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광장으로 모이고 있

다. 지난 5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으로 시민들이 대거 모였다. 이 날 집회는 제주 지역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제주 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10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가족 단위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중고등 학생, 초등 학생들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의 한 학생은 "지금까지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 추산 15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 밖에 광주, 원주, 부산, 경주 등 여러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들 소망의 저변에는 단순히 현 정부의 퇴진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 성난 민심은 폭발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백남기 농민이 생을 달리했던 민중총궐기와 함께, 이화여대의 '이화의 난'이 바로 흔한 한 이 정국(政局)의 시작점이다. 대학 본부의 일발적 평생교육단과 대학 설립 추진에 난(亂)을 일으킨 이들은 공권력의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 본부가 사업 추진을 취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아보니 어떠냐고 묻는다. 올 봄 학기부터 제주대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일 년이 채 못 된 셈이다. 그래도 지난 겨울의 끝 무렵부터 올 가을까지 살아왔으니 제주의 사계절을 그려서 조금씩 맛본 게 된다. 나름대로 이런 저런 대답을 내놓지만 그때그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풀어왔던 것 같다. 제주의 '마술적 리얼리즘' (남미 문학의 놀라움을 향한 이 용어는 본래는 '마술적 현실' 이 오해된 것이라 한다)에 값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부터 택배처럼 조금은 더 지불해야 하는 고독, 제주의 몇몇 사회적 문제와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주민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체험과 의견이었다. 이쯤 되니 나름대로 나만의 의견을 내놓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만, 같은 체험을 달리 말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통찰력을 평가 보면 아까운 것이다.

제주도에 와서 달라진 건, 속도와 습도라고 말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자기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요즘이다. 그런 시절에 아름다운 자연의 리듬에 눈 맞추는 일은 얼마나 복된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사뭇 다르다고 말한다. 정말로 자동차

로,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체험일 것이다. 느린 걸음으로 제주의 길과 숲을 걸을 때, 자동차로 달릴 때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시시때로 얼굴을 바꾸는 작은 들풀과 꽃잎, 돌담 위로 엿보이는 노랗게 익어가는 골, 나무들 아래 작은 버섯, 비 간 청명한 하늘, 바다와 하늘을 불게 물들인 낙조.

제주의 높은 습기도 나를 놀라게 했다. 웃과 가방에 피어나는 곰팡이꽃과 방바다의 촉촉함이란! 한편 심한 안구 건조로 익기와 쓰기가 무척 고생스러웠던 내게 봄날의 촉촉함이란 또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던가! 나는 그렇게 제주의 습도로 두 번 놀랐다. 생각해 보니 사람살이에서도 적절한 습도는 꽤나 중요하다. 여름보다 겨울에 감기에 더 잘 걸리는 이유는 낮은 습도 때 문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안구 건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절한 습도는 촉촉한 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너무 높은 습도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불편을 만들어낸다. 너무 높은 면역이 자가 면역 질환을 초래한다고 들었다. 면역력 역시 너무 높아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적절한 면역력이 건강한 삶의 조건이다. 습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조화와 균형에 대해 말하게 된다. 중庸의 미학이라니. 이 얼마나 재미없고 관습적인 이야기란 말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조화와 균형이란 것도 수많은 부조화와 혼들림 속에서 이뤄진다. 그렇다면 조화와 중庸의 간격이란, 어찌 보면 수수적인 부동자세의 관념이 아니라 엇나가고 빛나가는 일탈과 불균형 속에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 넘치거나 모자란 것은 좋지 않지만, 넘침과 모자람의 기우뚱한 총합이 넘친 것을 버리게 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게 한다. 늘 느리게만 산다면 역시 새로운 풍경의 발견과 경탄의 순간이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삶의 리듬 속에서 다른 공기를 호흡할 때, 새로운 풍경은 탄생한다. 여행이나 이주의 경험이 값진 것은 그래서다. 오늘 느릿하고 부드러운 시선이 나무 아래의 작은 버섯을 듣나니게 했다. 그런 걸음이 없다면 내게 녀석 따위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물론 적절한 습도가 없다면 곰팡이의 사촌이나 팔촌쯤 될 버섯이 자랄 수 없을 텐데. 사실은 그 버섯을 보고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맘먹었다. 이 어수룩한 글조차 제주의 미술적인 리듬과 공기 속에서 썩은 것이다.

## 사설

## 어디엔들 도리가 없겠는가

올해 초 경기도 부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 차량만 골라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된 일이 있다. 차량 29대에서 핸드백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A씨가 기사화된 깡패는 훔친 금품으로 군주론과 눈어 등 철학서 50여만 원 어치를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절도 전과 9범인 피의자는 가정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공부를 하고 싶어 철학서를 샀다고 한다.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된 민간 비선 실세 때문에 현정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고 보니, 군주론과 눈어를 샀다는 절도범이 새삼 달리 보인다.

도둑하면 공자 당시의 도척이라는 인물이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도둑의 대명사로 불리기 때문이다. 장자(莊子)는 남화경(南華經) 도척 편에서 공자가 도척을 가르치려 갔다가 오히려 도척을 받고 돌아왔다는 우화를 실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좀 도둑은 잡히지만 큰 도둑은 제후가 된다[小盜者拘大盜者諸侯]"이다. "내가 믿고 있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제 정신을 잃고 허둥대기만 하여,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일을 꾸미는 데 쓰임 뿐이므로 바빠놓은 것이다. 도척의 입을 벌려 "어디엔들 도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장자의 풍자는 위선자들을 상대로 한 준엄한 비판이다.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뽑는 일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조만간 학생자치기구의 일꾼을 뽑아야 할 우리 학생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렇게 뽑힌 이들은 나를 대신해서 성가신 일을 해 줄 고마운 이들이다. 그들은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지도자로 불린다. 하지만 어떻게 불리든 나를 대신해주는 공인(公人)일 뿐이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자치기구의 일꾼으로 나와 준 고마운 후보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영역으로 밭을 들여 놓는 순간 역사의 존엄한 비판을 두려워해야 할 공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는 방향을 요구받고 있다. 보편적으로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는 능력과 더불어 복잡한 도전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 역량과 주도성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이 등장했는데 실행에 앞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열린 교육과 창조 경제가 구체화되지 않은 채 강조되며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이를 만드는 코딩 기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체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인문학적 소양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문화와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간 대 기계의 대립 구도로 한정하는 편협성을 넘어 기술을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폭넓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대학 내 자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슈를 다루며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 대서관은 전자자료 구독에 6억 원 이상을 지불한다. 엄청난 자료들이 디지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 글쓰기를 훈련받는 것은 대학교육의 기본으로 특히 소통 능력이 최근 유네스코 등에서 기본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기에 더욱 그려졌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SMS나 SNS에 익숙해져 점차 단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을

여러움을 느끼고 있으나 토의이나 토플 등에서 글쓰기 기술 평가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논리적 글쓰기를 독자 과목으로 운영하기보다 모든 교양 강좌에서 과제 형태로 포함하여 교과목내에서 자신의 주제를 선정해 도서관 전자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선별, 검토하여 내용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구체적으로 배양하는 방안으로 지역 사회의 이슈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현실 참여적 교육으로도 확장 시킬 수 있다.

최근 제주 지역은 오라관광지구와 영어 교육 도시가 또거운 이슈로 전자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측면에서 후자는 학교 부지와 건물이 무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운영 중인 학교들은 수익을 국외로 반출하려 하면서 지역 사회 공여는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을 규제, 관리할 구체적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매 상황에 맞추어 진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겠는가? 담당자들은 상위 법규,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 서 벌어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이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의 부족이고 지역 사회 공무원의 다수를 공급하는 제주 대학교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 이슈 Check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 내야

## 정보화 사회인 요즘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는 무수히 많은 댓글을 통해 수 많은 사건이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된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lt;편집자 주&gt;

## '루머가 더 사실 같아보이는 경신간 세상',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최순실 사건은 큰 충격을 끼쳤다. 시간이 흘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경유착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국정은 마비됐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11월 5일에는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으며 광화문에 모인 약 20만 명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우리 나라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대신, 연임의 길을 더 놓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크게 손보지 않아 혼란을 줄일 수 있고 행정부와 의회가 여전히 독립돼 있어 서로 견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최장 8년까지 재임할 수 있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